

##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점증

18.06.11(월)~18.06.15(금)

강승건. neo.cygun@hi-ib.com  
최영수. yschoi@hi-ib.com

## 1. 전주 주가 추이

	현재가	Mkt. Cap.	PBR (2018F)	PER (2018F)	ROE (2018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W	1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404	1,489,735	1.0	9.7	11.5	-1.9	-2.2	-3.5	-3.1	-2.6	629	-1,153	-143	1,636	9,157
KOSDAQ	866	164,850	2.6	18.9	14.3	-1.4	0.4	-2.7	12.2	8.5	28	100	21	531	2,452
보험	18,217	20,926	0.6	11.3	6.0	-1.1	-4.8	-9.7	-14.0	-13.8	-3	-32	-42	20	140
증권	2,084	21,593	0.9	9.7	9.5	-3.0	-5.7	-2.8	-0.1	4.9	1	-29	-7	26	155
삼성생명	100,500	20,100	0.6	8.2	7.4	-3.8	-10.7	-13.7	-19.3	-19.3	-44	3	-41	5	49
한화생명	5,620	4,881	0.6	8.3	6.4	-0.2	-7.4	-13.8	-21.1	-18.7	2	-6	-1	2	12
ING생명	45,900	3,764	1.0	10.5	9.7	10.2	10.6	-1.9	-10.5	-14.0	10	-6	4	5	10
동양생명	7,490	1,209	0.5	8.0	6.1	4.9	0.8	1.9	-5.2	-1.4	1	1	0	1	3
삼성화재	260,500	12,341	1.0	10.4	9.7	-0.4	-1.7	-6.1	-2.8	-2.4	11	-11	-3	3	24
DB손해보험	60,000	4,248	0.8	5.9	13.7	-1.8	-1.3	-10.7	-15.6	-15.7	5	-6	-1	2	16
현대해상	34,800	3,111	0.8	5.4	15.4	-1.6	-5.2	-10.2	-25.4	-26.0	7	-7	0	1	10
메리츠화재	20,150	2,223	1.1	6.3	18.7	-1.2	-1.0	-7.4	-13.7	-14.3	-2	0	-2	0	4
한화손해보험	6,890	804	0.6	4.8	13.3	1.3	-2.5	-20.3	-17.6	-15.4	2	-1	1	0	2
삼성증권	36,900	3,295	0.7	7.4	9.6	-1.6	-1.7	-8.9	-0.4	0.8	13	-1	1	3	25
미래에셋대우	9,060	5,964	0.7	8.9	9.0	-4.2	-9.4	-4.2	-12.9	-1.4	-18	-5	-18	8	49
NH투자증권	16,000	4,503	0.9	9.9	9.7	-2.4	-2.4	10.7	12.3	15.1	10	-12	15	9	33
한국금융지주	89,500	4,987	1.2	8.4	15.2	-5.0	-6.1	5.5	30.5	29.7	9	-14	-0	13	35
키움증권	114,500	2,530	1.4	8.9	17.9	-4.6	-6.9	4.1	30.3	30.7	-0	-3	-3	2	22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frnguide 컨센서스 기준

## 2. 전주 동향

보험	보험업종 강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은 하락하였지만 KOSPI대비로는 강세를 시현하였음. 하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신저가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손해보험업종 역시 저점 테스트를 다시 하고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ECB의 연말 양적완화 종료 등 금리와 관련된 우호적 뉴스에도 불구하고 보험업종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 보험사, 대형 GA에 근거없는 금전지원금지: 보험사가 대형 GA에 사무실비, 시상, 시책 등 계약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 금전적 지원이 일절 금지될 예정임.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9년 4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시행을 앞두고 최근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음
증권	증권업종 약세 시현: 증권업종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이미 예상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었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의 시장 매도에 대한 우려가 증권업종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 금리 상승과 신홍국 주가 지수 하락은 채권평가손실과 ELS 조기상환 여건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보다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판단 ▶ 삼성증권 4~5월 실적발표: 4월 순이익 317억원, 5월 순이익 379억원(별도기준) 시현하였음. 전분기인 1Q18 순이익 월평균 452억원보다는 적지만, 전년동기인 2Q17 순이익 월평균 212억원 대비로는 크게 증가한 수준임. 4월에 배당사고손실 99억 인식. 1분기 대비로 리테일 MS 확대되었으며 ELS 헛지운용 손익 증가 효과는 긍정적이었으나 환관련 손실이 반영되었음. ▶ 공정위, "미래에셋대우-네이버, 자사주 교환 위법 아냐": 미래에셋대우-네이버의 5,000억 규모 자사주 교환 관련 국감에서 편법이라는 논란이 있음.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는 각 명의자이며, 틸법행위 아님라는 입장 밝힘

##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18.06 누계	MoM	Quarterly					2Q18 누계	QoQ
			18.01	18.02	18.03	18.04	18.05			2Q17	3Q17	4Q17	1Q18	2Q18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14.4	59.0	15.8	13.0	12.4	14.3	15.0	13.9	-7.0	8.9	8.2	11.8	13.8	14.5	5.0	
KOSPI	8.9	65.8	7.1	6.9	6.9	7.8	9.1	8.3	-7.8	5.6	5.2	6.0	7.0	8.4	20.4	
KOSDAQ	5.5	49.1	8.7	6.2	5.5	6.5	5.9	5.6	-5.7	3.2	3.0	5.8	6.8	6.1	-10.7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12.6	27.7	11.2	11.2	11.3	12.2	12.5	12.6	0.7	8.5	8.3	9.8	11.3	12.6	11.1	
KOSPI	6.2	39.6	4.8	5.3	5.4	6.0	6.2	6.2	1.0	4.1	4.0	4.5	5.4	6.2	15.8	
KOSDAQ	6.3	17.8	6.5	5.9	5.9	6.2	6.3	6.3	0.5	4.4	4.3	5.4	5.9	6.3	6.9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bp	
1년	1.85	3.1	1.84	1.84	1.89	1.85	1.85	1.85	0.2	1.47	1.53	1.85	1.89	1.85	-3.8	
3년	2.19	7.7	2.27	2.27	2.22	2.22	2.20	2.19	-0.3	1.70	1.89	2.13	2.22	2.19	-2.5	
5년	2.47	13.7	2.57	2.52	2.43	2.48	2.48	2.47	-0.5	1.90	2.08	2.35	2.43	2.47	4.7	
10년	2.68	18.5	2.77	2.74	2.62	2.72	2.70	2.68	-1.8	2.21	2.37	2.47	2.62	2.68	5.5	
약정 MS	%	17년대비, %						%	%p					%	%p	
삼성증권	5.9	-0.0	6.5	5.8	6.2	6.4	6.1	6.1	-0.0	5.9	6.2	6.0	6.2	6.2	-0.0	
미래에셋대우	12.2	-0.4	13.6	13.2	13.1	13.2	12.8	12.4	-0.5	12.5	12.7	13.2	13.3	12.9	-0.4	
NH투자증권	6.2	0.2	6.4	6.1	6.3	6.4	6.4	6.4	-0.0	5.9	5.7	6.4	6.3	6.4	0.1	
한국금융지주	5.1	-0.7	5.9	5.5	5.5	5.2	5.1	5.1	-0.1	5.7	6.1	5.8	5.7	5.3	-0.4	
키움증권	17.8	1.3	17.7	17.5	17.1	18.5	18.2	18.5	0.3	16.0	15.3	17.4	17.5	18.4	0.9	

자료: KOFIA, Check, KRX

## 4. 금주 전망

보험	- 전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ECB의 연말 양적완화 종료는 어느정도 예상된 수준의 이벤트 결과였음. 신홍국 환율 불안에 따라 일부 신홍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임 -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우상향의 방향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다시금 확대되고 있어 장기채권 금리의 상승의 예상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됨(한국 강기국채) - 감독당국의 G.A. 채널에 대한 감독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시장 경쟁의 완화 가능성에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크게 완화된 것으로 생각함 - 지금의 보험업종의 주가 수준과 금리의 상승, 그리고 시책 부담 축소 등을 감안할 때 투자 매력이 존재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이후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는 주요 당선자의 금융관련 공약과 감독당국의 규제 강도는 금융업종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보험업종 역시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정책 방향성이 구체화되는 시기까지는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증권	- 금리와 관련된 이벤트는 종료되었지만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7~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임 - 또한 신홍국 중심으로 환율 상승, 주가지수 하락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ELS 조기상환 축소에 대한 우려감도 점증하고 있음. 이는 1분기 실적 개선을 견인하였던 Trading 손익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임. 6월 일평균거래대금은 13.9조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4~5월 대비 낮은 수준으로 거래대금 peak out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 2분기도 증권업종은 매우 우수한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분기 이후 실적 결정 변수의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확대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신홍국 환율 급등 등의 대외 불확실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됨 - 전주 증권업종의 주가 하락으로 금주에는 하락 폭이 재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외 불확실성의 안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가의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6월 19일	미국	주택착공건수	건	1,355M
6월 20일	미국	5월 기준주택판매	MoM, %	-2.5
6월 21일	영국	6월 금리결정	%	0.5

##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p>06/11 (월) ► 매리츠화재 '고수수료' 정책, 전화 영업서도 결실(대한금융신문) 설계사 확대 및 고객DB 확보 주력해 매출 신장. 작년 사상 최대실적…1~5월 기준 TM채널 신계약 전년동기대비 4배 성장</p> <p>▶ 삼성화재 "전자 매각차익 가입자 배당 가능" (비즈니스와치) 삼성전자 주식 매각차익, 생명 1조~화재 1900억. 화재 "배당 여력 있어"-반면 생명은 손실로 배당 어렵다는 입장. 화재, 유배당보험 가입자 적어 배당규모는 미미</p> <p>▶ NH투자 해외주식, 미래에셋 대주 '대향미' (한국금융신문) NH투자증권, 해외주식 매매 증가 적극 확장. "수수료 할인 등 공격적 영업으로 맹추격". 조직 키우고 인력 육성…양강체제가 목표</p> <p>▶ 국내외 주택단지 개발 나선 미래에셋그룹 (건설경제) 미래에셋그룹, 국내외 주택단지 개발사업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계획. 미래에셋운용 인도 현지법인의 대체투자펀드를 통해 인도 주요 거점 도시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 예정. 미래에셋대우는 서울시 청년 임대주택사업인 '2030 청년주택' 개발사업에 금융 주선과 직접투자를 확대</p> <p>06/12 (화) ► NH증권, 발행어음 라인업 '다양화' 초점 (더밸) 한국증권 비교해 금리·만기 세분화, 적립형 상품 등 검토</p> <p>▶ 삼성증권, 미국주식 거래비용 낮췄다 (EBN) 미국주식 거래시 주당 부과되는 0.003달러 전산거래비용(ECN Fee) 면제. 고객들 수수료 혜택 높이는 차원…삼성증권 해외주식 고객 몰이 드라이브</p> <p>▶ 손보사 GA채널 의존도 갈수록 심화…전체 절반 육박 (서울파이낸스) 현대해상 등 대리점 의존도 60% 상회. 금감원을 상반기 사업비 본검사 예고</p> <p>▶ '지주사 전환' 우리은행, 교보증권 인수 추진 (연합인포맥스) 우리은행은 교보생명과 협상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간접 인수'에 나선다는 계획. 교보생명은 교보증권 지분 54.67%를 보유한 최대 주주</p> <p>06/14 (목) ► 대형 보험대리점에 근거없는 보험사 금전지원 금지 (연합뉴스) 사무실 임차비 우회지원 계약서 근거 없는 시상도 안 돼. 당국, 내년 4월 전면금지 시행 앞두고 보험사에 문답서 배포</p> <p>▶ NH증권, 삼성물산 서초사옥 인수의지 '강력' (더밸) 그룹 계열사와 '농협리츠운용' 지원…코람코자산운용 투자자로도 '등판'</p> <p>▶ 여의도에 풋한 NH투자증권, 랜드마크 투자 '왜' (EBN) IFC를 투자·파크원 금융주선 이어 세 번째 여의도 랜드마크, 여의도 MBC 부지 투자. IB 전문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영향에 부동산 투자 '적극적'</p> <p>▶ 증권사 충성고객 떠난다…'제로 수수료' 경쟁 본격화 (뉴스핌) 삼성증권 비대면 무료수수료 이벤트 연장. NH투자증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 수수료 이벤트 진행 등</p> <p>▶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2년새 150% 경충 (매일경제) 작년 한방진료비, 2015년 대비 1.5배 이상 늘어나. 비급여 과잉진료가 원인.</p> <p>▶ 이현 키움증권 대표의 승부수…WM부문 성과 이어질까(아시아투데이) 지난해 취임한 이현 키움증권 대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구.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자산관리(WM)부문에서도 투자일임자산 증가 등의 성과 나타나. 하반기 중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온라인 캡 가입) 허용에 대비해 키움증권은 랩 상품의 본격적인 마케팅을 준비</p> <p>06/15 (금) ► 공정위 "미래에셋대우-네이버, 자사주 교환 위법 아냐" (EBN) 미래에셋대우-네이버, 5000억 자사주 교환 국감서 편법 논란</p> <p>▶ 삼성증권 4~5월 실적발표 4월 순이익 317억원, 5월 순이익 379억원 (별도기준) 참고로 1Q18 순이익 월평균 452억원, 2Q17 순이익 월평균은 212억원임 4월에 배당사고손실 99억 있었으나 1분기 대비로 리테일 MS 확대되었으며 ELS햇자운용 손익 증가 효과가 반영되었음</p>
----	--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 W	1 M	3M	6M	YTD
한국	KOSPI	2,404		1.0	9.7	11.5	3.1	-1.9	-2.2	-3.5	-3.1	-2.6
	보험	18,217		0.6	11.3	6.0	0.6	-1.1	-4.8	-9.7	-14.0	-13.8
	삼성생명	100,500	18.2	0.6	8.2	7.4	0.8	-3.8	-10.7	-13.7	-19.3	-19.3
	한화생명	5,620	4.4	0.6	8.3	6.4	0.4	-0.2	-7.4	-13.8	-21.1	-18.7
	ING생명	45,900	3.4	1.0	10.5	9.7	1.1	10.2	10.6	-1.9	-10.5	-14.0
	동양생명	7,490	1.1	0.5	8.0	6.1	0.5	4.9	0.8	1.9	-5.2	-1.4
	삼성화재	260,500	11.2	1.0	10.4	9.7	1.5	-0.4	-1.7	-6.1	-2.8	-2.4
	DB손해보험	60,000	3.9	0.8	5.9	13.7	1.3	-1.8	-1.3	-10.7	-15.6	-15.7
	현대해상	34,800	2.8	0.8	5.4	15.4	1.2	-1.6	-5.2	-10.2	-25.4	-26.0
	메리츠화재	20,150	2.0	1.1	6.3	18.7	1.8	-1.2	-1.0	-7.4	-13.7	-14.3
	한화손해보험	6,890	0.7	0.6	4.8	13.3	1.1	1.3	-2.5	-20.3	-17.6	-15.4
	증권	2,084		0.9	9.7	9.5	1.0	-3.0	-5.7	-2.8	-0.1	4.9
	삼성증권	36,900	3.0	0.7	7.4	9.6	1.1	-1.6	-1.7	-8.9	-0.4	0.8
	미래에셋대우	9,060	5.4	0.7	8.9	9.0	0.8	-4.2	-9.4	-4.2	-12.9	-1.4
	NH투자증권	16,000	4.1	0.9	9.9	9.7	1.1	-2.4	-2.4	10.7	12.3	15.1
	한국금융지주	89,500	4.5	1.2	8.4	15.2	1.2	-5.0	-6.1	5.5	30.5	29.7
	기업증권	114,500	2.3	1.4	8.9	17.9	2.6	-4.6	-6.9	4.1	30.3	30.7
일본	Nikkei225	22,852		1.7	16.6	10.2	1.9	0.7	-0.3	5.4	-0.2	0.4
	보험	1,053		0.8	11.2	7.2	0.6	-0.1	-5.0	8.3	-1.1	-0.7
	Dai-ichi Life Holdings	4,017	25.8	2.2	46.8	4.7	2.6	4.7	2.2	2.5	40.9	36.8
	Japan Post Insurance	2,459	13.3	0.7	16.1	4.6	0.1	-0.8	-3.4	-5.5	-5.7	-7.2
	Tokio Marine Holdings	5,574	37.7	1.0	15.3	7.3	1.1	2.2	4.8	12.3	11.5	8.4
	증권	411		0.8	9.8	8.4	0.6	0.2	-5.3	-4.0	-6.1	-5.6
	Nomura Holdings	566	18.7	0.7	7.8	9.0	0.6	-1.5	-7.6	-10.8	-15.1	-14.9
	Daiwa Securities	649	10.0	0.8	10.0	8.6	0.6	0.6	-2.7	-7.9	-6.5	-8.2
	SBI Holdings	3,040	6.2	1.5	13.2	11.9	1.2	5.5	-2.1	18.4	18.4	29.0
중국/홍콩	Hang Seng	30,309		1.3	11.9	12.7	1.1	-2.1	-2.4	-3.8	4.3	1.3
	상해A주 지수	3,165		1.4	11.9	12.1	1.2	-1.5	-5.4	-7.6	-7.5	-8.6
	보험	164		1.3	11.7	11.1	1.8	0.0	1.3	-10.3	-6.6	-9.1
	China Life	22	100.6	1.4	11.9	12.6	1.5	-3.7	-2.9	-4.8	-8.4	-10.6
	Ping An Insurance	79	183.9	2.2	11.8	19.4	1.6	1.0	0.7	-11.3	2.7	-2.3
	AIA	70	107.1	2.3	18.7	13.0	2.6	-3.3	-4.2	3.6	12.3	4.4
	증권	104		1.2	15.8	8.0	51.8	-2.2	-11.4	-14.8	-19.0	-17.9
	CITIC Securities	18	33.5	1.1	14.1	8.7	2.1	-5.1	-8.0	-1.0	15.1	13.4
	Haitong Securities	9	16.4	0.7	9.3	7.6	1.7	-6.3	-15.1	-16.8	-19.2	-19.3
	Huatai Securities	14	17.1	0.9	10.3	8.8	2.0	-7.2	-12.0	-12.0	-8.2	-9.4
미국	S&P500	2,780		3.2	17.5	18.5	3.5	0.0	2.5	1.0	3.3	4.0
	보험	383		1.3	11.8	11.3		-1.3	-0.9	-4.5	-5.0	-4.7
	AIG	55	49.6	0.8	11.3	6.8	0.9	0.2	2.8	1.7	-7.0	-7.3
	Metlife	46	47.1	0.9	9.1	10.6	0.7	-2.3	-3.3	-2.1	-9.9	-8.4
	Prudential Financial	99	41.4	0.9	8.0	12.0	0.6	-2.0	-2.6	-9.3	-14.8	-14.3
	증권	211		2.2	15.4	12.8	1.3	-1.3	-0.1	-2.8	2.8	3.9
	JP Morgan	108	367.4	1.5	12.1	13.4	1.2	-2.9	-4.8	-6.5	1.7	0.9
	Goldman Sachs	232	91.0	1.2	10.1	12.2	1.0	-0.6	-3.8	-13.3	-9.8	-9.0
	Charles Schwab	56	75.7	4.1	23.1	19.1	1.3	-2.8	-4.7	0.7	9.4	9.2
유럽	MSCI Europe	131		1.8	14.6	9.9	1.0	1.0	-1.6	3.0	-1.2	-0.2
	보험	74		1.1	10.6	11.8	0.5	0.5	-5.7	-4.1	-5.2	-3.2
	Allianz	180	90.0	1.2	10.4	11.4	0.8	1.0	-4.8	-4.5	-8.5	-5.8
	AXA	22	60.8	0.7	8.3	8.7	0.5	-0.9	-4.6	-5.2	-14.5	-12.7
	Prudential plc	1,838	63.3	2.7	12.6	21.0	0.6	0.1	-4.1	-4.0	-0.5	-3.6
	Munich Re	182	31.6	1.0	10.9	9.0	3.6	1.8	-5.1	-3.7	-2.3	0.7
	증권	72		1.1	14.6	6.8	0.5	0.4	-4.2	-6.6	-9.7	-8.2
	UBS	16	59.9	1.1	11.3	9.4	0.5	0.6	-3.3	-12.3	-10.6	-12.0
	Credit Suisse	15	39.4	0.9	12.8	7.2	0.4	1.2	-8.1	-10.5	-10.7	-10.4
	Deutsche Bank	9	22.8	0.3	20.4	1.4	0.3	-0.6	-13.5	-26.1	-42.6	-40.2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f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851	1,839	1,912	1,908	1,849	1,853	1.2	-6.1	-5.7	0.2	-0.2
		3 Year	2.192	2,180	2,308	2,267	2,071	2,134	1.2	-11.6	-7.5	12.1	5.8
		5 Year	2,472	2,472	2,592	2,495	2,252	2,347	0.0	-12.0	-2.3	22.0	12.5
		10 Year	2,677	2,707	2,815	2,707	2,430	2,467	-3.0	-13.8	-3.0	24.7	21.0
일본	국고채	1 Year	-0.131	-0.130	-0.129	-0.137	-0.171	-0.145	-0.1	-0.2	0.6	4.0	1.4
		10 Year	0.038	0.047	0.060	0.046	0.046	0.048	-0.9	-2.2	-0.8	-0.8	-1.0
중국	국고채	1 Year	3.370	3,210	2,966	3,300	3,780	3,834	16.0	40.4	7.0	-41.0	-46.4
		10 Year	3,623	3,657	3,717	3,853	3,894	3,902	-3.4	-9.4	-23.0	-27.1	-27.9
미국	국고채	1 Year	2,303	2,282	2,274	2,045	1,683	1,732	2.0	2.8	25.8	61.9	57.1
		10 Year	2,921	2,946	3,072	2,828	2,353	2,405	-2.6	-15.2	9.3	56.8	51.5
유럽	국고채	1 Year	-0.565	-0.577	-0.543	-0.576	-0.644	-0.611	1.2	-2.2	1.1	7.9	4.6
		10 Year	0.403	0.449	0.645	0.576	0.301	0.427	-4.6	-24.2	-17.3	10.2	-2.4

자료: Bloomberg

##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개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관)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중립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